

남도음식 매력 세계로... 목포시 '맛의 도시' 브랜드화

10월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개최... 내년 국제미식산업박람회 유치 총력 지역 식재료 활용 '향토음식진흥센터' 설립...남도음식 산업화 모색도

목포시가 재미진 남도의 음식 맛을 무기삼아 '맛의 수도 목포' 브랜드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목포시는 목포항구축제와 연계한 미식행사, 목포 주전부리 3종 개발, 평화광장 맛의 거리 조성 등 음식관광 콘텐츠 및 상품개발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옛 목포세관을 보수·정비한 '목포미식문화 갤러리-해관1897'에서 목포9미(낙지, 홍어, 갈치, 병어, 우럭, 준치, 민어, 아귀, 꽃게)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이 곳을 젊은 세대를 겨냥한 미식 콘텐츠를 발굴해 목포만의 차별화된 맛과 특색이 있는 장소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미식관광의 가치와 경쟁력을 더

크게 다져나간다는 포부다. 오는 10월 목포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음식축제인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열린다. 목포문화예술회관 일대에서 개최되는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1994년 시작해 올해 30회째를 맞는다. 지난해 첫 국제행사로 확대된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남도의 맛'을 세계로 전파하며 다양한 변신을 꾀했다.

시는 목포 음식만의 독창성을 선보일 뿐만 아니라 남도음식의 매력을 보여주고 세계 음식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진수성찬을 차려나가는 계획이다. 2024년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개최와 함께

2025년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가칭) 유치를 위해서도 힘을 쏟고 있다. 박람회가 확정될 경우 국내 최초로 미식을 주제로 열리는 세계적인 행사가 될 전망이다.

또 지역 고유의 식재료를 활용한 향토음식의 체계적 관리 및 산업화를 위한 '향토음식진흥센터' 설립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시는 향토음식진흥센터가 설립되면 남도 음식의 위상과 한식의 세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미식 관련 국제적 행사 개최로 목포의 맛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내외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목포의 맛을 활용한 다양한 미식관광 프로그램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맛의 수도 목포 브랜드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성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포 미식 페스티벌에서 참가자들이 목포 음식을 주제로 경연을 펼치고 있다. <목포시 제공>

해남 '마산~산이' 지방도 확·포장 상반기 착공

2029년까지 1단계 5.6km...물류 중심지 도로 협소 불편 해소

해남 마산~산이간 지방도 4차로 확포장공사에 올 상반기 본격 추진된다. 해남군 마산면과 산이면을 연결하는 지방도 806호선 도로는 해남의 내륙을 관통하는 도로로 해남배추와 고구마 등 농산물 물류의 중심지이지만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 겨울이 운행의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솔라시도 기업도시내 각종 개발사업과 화원산단의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신산업들이 대거 유치됨에 따라 관련 물동량의 증가가 예상

되면서 도로 여건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군은 이에 따라 전남도에 도로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 도로 확포장을 총 4단계로 나눠 추진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총 사업구간은 16.7km, 1439억원 공사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1단계인 마산 상등교차로~산이면 노송리 구간 5.6km에 대해 올 상반기 중 먼저 착공하게 된다.

1단계 사업기간은 오는 2029년까지이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사업 추진 속도를 반영해 향후

탄력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마산~산이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를 비롯해 해남군의 교통망 구축이 눈에 띄게 개선되면서 지역 장기성장의 기반이 될 것으로 해남군은 기대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마산~산이간 확포장공사조기 착공하면서 서남권역의 교통망이 사통팔달 완성되는 큰 그림이 완성되고 있다"며 "고속철 해남노선 반영 등 핵심사업들도 주민들의 의지를 모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신안-괴산 군의회 고향사랑기부금 교류

지난해 자매결연 협약 이어 양 지자체 발전 도모

신안군의회(의장 김혁성)와 괴산군의회(의장 신승규)가 최근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고 상호 교류를 약속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상호간 교류는 양 자치단체 간의 깊은 협력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 신안군과 괴산군 간의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양 자치단체의 발전을 모색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혁성 신안군의회 의장은 "이번 상호기부금 통해 두 자치단체와 의회가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 간의 발전을 다져나갈 수 있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 지역이 서로를 돕고 함께 성장하는 관

계를 지속적으로 교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부금 통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적으로 더욱 확산되도록 신안군의회가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했다.

한편, 신안군은 자매결연 자치단체에 명예성을 지정해 주는 등 자치단체 간 우호 증진과 성장을 위해 현재 괴산군을 비롯해 전국 23개 시·군·자치구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앞으로도 많은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해 지역 발전에 상호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육아 부담 경감·소통의 장 '진도군 가족센터'

진도읍 동외리 지난해 11월 개소 놀이터·상담실·언어교실 등 갖춰 방학중에도 운영...누구나 무료

진도군은 진도읍 동외리에 진도군가족센터(사진)를 지난해 11월부터 시범 운영한 뒤 현재 정상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가족센터는 진도군이 지난 2020년 생활사회기반 시설(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되면서 신축했다. 6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586㎡,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했다.

건물 1층에는 어린이 실내 놀이터인 '상상놀이터'와 부모들의 쉼터인 육아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 방과 후 아동 돌봄을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다.

2층에는 가족센터 사무실과 상담실, 3층에는 교육실과 언어 교실이 있다.

건물 밖에서는 야외 놀이터를 즐길 수 있다. 가족센터에 마련된 돌봄센터는 영유아와 아동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한다. 학기 중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방학 중



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일요일과 월요일, 법정 공휴일은 휴관일이다. 누구나 무료 이용할 수 있으며, 진도군가족센터(061-542-9994)에 미리 운영 문의를 하는 것이 좋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진도군가족센터가 진도군민의 생활 편의 증대를 위해 기반 시설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며 "야간과 영농철에도 육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중수 기자 js7777@kwangju.co.kr

목포·신안 통합 '봄 업'...민간주도 행사 잇따라

목포 23개 동-신안 14개 읍·면 자매결연...실무기구 구성 등 심혈

목포시가 서남권 발전전략의 하나인 신안군과의 통합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민간주도의 봄 조성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목포시는 지난해 읍면동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농촌일손돕기, 신안 농산물구매, 노인회, 아·통장협의회, 재향군인회 교류 등 친목과 상생협력을 위한 민간주도의 행사를 개최했다.

올 해에는 신안군과 통합협력 실무기구를 빠른 시기에 구성하고, 실무기구 논의를 통해 상생협력 과제 발굴 추진 등 신안-목포 통합 공감대를 넓혀 나간다는 방침이다.

목포시는 지난해 목포시 23개 동과 신안군 14개 읍면의 자매결연 완료했다. 이를 통해 201회에 걸쳐 4000여 명이 참여하는 농촌일손돕기, 아·미용봉사, 축제방문, 해양 정보활동, 김장김치 나눔 등 통합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왔다.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도 사회단체 대표와 신

안 연고자 등 78명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목포신안 통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목포 상그리아비치호텔에서 청년분과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청년분과 위원회에는 목포에 거주하는 20대~40대 20여 명이 참여했다.

통합의 열기는 올 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통합추진위원회에서는 지난달 전남도의회에서 목포신안무안 행정통합 선언식과 원도심 오거리 문화센터에서 무안반도 통합을 주제로 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또 제2기 어울아카데미 운영, 통추위 홍보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섬' 찾아가는 나눔봉사(아·미용봉사 등), 추석맞이 신안군 귀성객 음식봉사, 목포항구축제 신안 우수 농산물 상생장터 개설, 통합 홍보 TV광고 송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목포·신안통합 분위기 조성에는 목포시 공무원

은 물론 시의회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목포시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신안군 우수 농산물 구매운동이 펼쳐졌으며 목포시의회에서도 목포, 무안, 신안 등 3개 시군의 지역통합 논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목포시의회 김귀선 의원은 지난 1월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무안반도 통합 이후를 준비할 목포, 무안, 신안 지방의회 공동연구단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목포시는 향후 통합에 버금가는 주민체감 정책과 목포·신안 통합 상생과제를 발굴하고, 통합공감대 구축을 위한 지역민 밀착 홍보 강화에 나갈 계획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방소멸의 시대를 맞아 민간중심으로 목포·신안통합의 공감대를 만들어 가겠다"면서 "이를 통해 관광통합, 경제통합, 최종적으로 행정통합을 이뤄 두 지역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장봉성 기자 jbs@kwangju.co.kr

완도 문화관광 해설 서비스 온라인 신청

전화 예약 시스템 개선...완도군청·문화관광 누리집서 정보 입력

완도군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역사, 문화 등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관광 해설' 온라인 사전 예약 시스템을 운영한다.

문화관광 해설은 그동안 전화로만 예약할 수 있었으나 온라인 예약으로도 확대 운영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용일로부터 최소 5일 전에 예약 해야 문화관광 해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완도군청 또는 완도문화관광 누리집에서 '해설사 예약'을 클릭한 후 본인인증을 한 다음 예약인 정보, 예약 일시, 예약 장소를 입력하면 된다.

문화관광 해설 서비스가 가능한 관광지는 해양

치유센터와 완도타워, 정동리 구계동, 장보고 기념관, 청해진 유적지, 완도수목원, 이순신 기념관, 충무사, 약산 해안치유의 숲, 청산 서면재 활영지, 범바위, 구들장논, 소안 항일운동기념관, 금당 8경, 운선도 원림 등이다.

해설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오현철 완도군 관광과장은 "관광 해설을 통해 관광객들이 완도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관광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길 바란다"며 "관광 해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무안 어린이 장난감 사지 말고 빌리세요

'맘쓰허그 장난감도서관' 회원 모집...450가지 최장 14일 임대

무안군이 '맘쓰허그 장난감도서관' 신규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옛 무안고등학교 건물(무안읍 교촌리)에 있는 무안군장난감도서관은 450가지의 장난감을 갖췄다.

장난감을 한 달 8점까지, 최장 14일간(1회 연장) 빌릴 수 있다.

1년 연회비는 개인 2만원, 단체 3만원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가족, 한 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3자녀 이상은 연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회원 신청은 도서관을 찾아가거나 맘쓰허그 무안군장난감도서관 누리집(matoy.kr)에서 할 수 있다.

무안군에 사는 취학 전 영유아 보호자라면 누구

나 신청할 수 있다.

맘쓰허그 무안군장난감도서관은 이달 중순부터 5월까지 매달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통해 균형 있는 신체기능 발달과 가족 기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무안군장난감도서관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정오~오후 1시) 운영되며, 법정 공휴일에는 휴관한다.

김산 무안군수는 "450점의 다양한 장난감 대여로 부모의 장난감과 육아용품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우리 사회가 당연한 저출산과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영광군 3개월간 '산불방지본부' 운영

영광군은 이달부터 오는 5월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날씨가 건조해지고 영농 활동이 시작되면서 영광군은 104일간 산불방지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영광군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2명을 선별해 본청에 2개 소 10명, 11개 읍·면에 42명을 배치했다. 대원들은 각 마을을 순찰하고 영농 부산물·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

정이다.

산불을 예방하고 초동 대응하기 위해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7곳(총 12대), 산불신고 단말기(GPS) 52대, 산불 진화 차량 12대, 산불 진화용 인차 헬기 1대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 소각"이라며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우면 최대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며 지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